

7/5/26

설교 제목: 가라지 비유, 겨자 씨 비유, 누룩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3 장 24-43 절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막 4:30-32; 눅 13:18-21)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막 4:33-34)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앞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이어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밭을 ‘제 밭’이라고 분명하게 당신 소유임을 주장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여호와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입니다.

(시 24: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

(시 24: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런데 이 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가 사람들이 자는 시간을 이용하여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가라지에는 독이 있어 실수로 먹었을 경우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심할 경우 목숨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밀이나 보리의 그것과 흡사하여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원수들의 이같은 행동은 불법입니다.

(레 19:19)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로써 사람들을 의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또한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원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자신들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을 심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괴롭히고 박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종들이 결실기에 이르러서야 인지하고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의아해 합니다.

종들은 좋은 씨 사이에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왔는지???

종들이 주인에게 당장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고 나의 주권이니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시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공간에 놓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혹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실할 때’는 추수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악의 세력과 죄악의 관영이 절정에 달한 시기를, ‘추수 때’는 심판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 받아 당장 그들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멸망을 보고자 하는 믿는 자들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연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날, 심판의 날, 공의의 하나님은 가라지 곧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유향 불못 속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생,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 (겨자 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변화성에 대해 말씀 하십니다.

먼저 겨자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식물의 씨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자 씨는 정말 작습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휘익 날아가 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약 3m 정도의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 씨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의 확장성과 변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비록 지금 당장은 미약하고 보잘 것 없이 시작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기에 비해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겨자 씨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믿음이 마침내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열 두 제자, 120 문도에 의해 발전되어 현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대제국 앗수르의 속국들과 대 제국 바벨론의 속국들, 곧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여드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나무 가지에 깃드는 공중의 새들은 강대한 왕국의 보호와 통치 아래 모여드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는 겨자 나무, 곧 천국의 실체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대목은 고통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쉼 곳을 찾는 세계 각처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도 천국의 확장성과 변화성을 상징합니다.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입니다.

당시 빵을 만들기 위해 누룩을 넣은 반죽 조금을 새 반죽과 함께 섞어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면 비록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갔음에도 반죽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 씨와 누룩 같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눈에 뜨지 않게 작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 확장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날 천국에 대해 무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감추어졌던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를 통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 온 질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악이 성행하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해 보이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 공의의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넘기시고, 곡식은 곳간에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악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는 과정에서 혹여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겨자 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로, 유대 종교 체제가 무너졌고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도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고, 오늘도 세계 곳곳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의를 보며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 씨처럼 작아 보이고, 우리의 영향력도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 씨가 자라 수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변화시키듯,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라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고, 누룩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큰 나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손바닥 위의 겨자 씨처럼, 반죽 속에 감추어진 누룩처럼 작고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